

장애·비장애 야구단... 팀플레이는 'Best'

한솔복지관 베스트원 야구단

장애아동이 야구를 한다고?

"다시, 다시! 윤호 때문에 다시!"

11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감독 선생님의 불호령이 연신 이어진다. 체조를 하는 등 마는 등 판정을 피우는 윤호(11) 때문이다. 동그렇게 원을 그리고 모인 10명의 아이들은 열 번의 PT체조를 더 하게 됐는데 어쩔 일인지 모두 태연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내 단체 기합의 주범 윤호의 계걸음 흥내에 아이들이 모두 깔깔대며 자지러진다. 발달장애 2급 윤호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웃음으로 무마시킨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 베스트원(Best one) 야구단의 몸풀기 체조시간. 과연 꼬마 선수들은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지는 않는다. 그때마다 팀원들끼리 유쾌하게 웃어넘기면 그뿐이다.

규칙배우며 배려심도 늘어

하지만 복병은 있기 마련. 프로야구팀 벵센의 열렬한 팬이라는 준석이(13, 지적장애)는 초기만 해도 공이 날아오면 파하기 바빠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경기마다 준석이 곁에서 야구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즈 형틀 덕분에 이전 제법 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비장애아동인 도윤이(8)는 "준석이 형이랑 야구를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다"고 했다. 빠르게 공을 주고 받는 캐치볼을

장애·비장애아동 통합 활동 손잡고 달리며 친밀감 속속 협동심·사회성향상 프로젝트

할 수는 없지만 준석이가 힘을 다해 던져주는 공을 받는 재미도 남다르다는 것이다.

도윤이 어머니 오은숙(43)씨는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깨주고 싶어서 아이에게 야구단 가입을 권유했다. 오씨는 "아이기가 크다 보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경계에 서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아이로 키워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도윤이가 요새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준다"며 "야구를 하면서 배



야구를 좋아하는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모여 결성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베스트원 야구단

려움을 키워가는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야구단 활동이 가져다 준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준석이 역시 야구를 하기전에는 고집도 세고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했지만 야구규칙을 배워가면서 규율을 알게 되고 출발 행동도 줄어들었다.

승업이(13, 지적장애)와 종현이(13, 지적장애)도 줄곧 돌이켜 놓았지만 점차 먼저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팀을 이뤄 야구를 해본 게 처음이라는 수빈이(16, 왜소증)는 야구단 일원이 된 것이 마냥 자랑스럽다. 보충수업이 늦게 마쳐 10분밖에 공을 못 만지더라도

꼭 운동장으로 나오어야 한다. 때문에 팀원들의 출석률도 100점에 가깝다.

이처럼 결속과 화합이 생명인 베스트원 야구단은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경기도 지역 리그를 야구단과 친선경기를 펼쳐볼 생각이다.

베스트원 박노진 야구감독은 "처음에는 배트로 공만치면 1루수에 있던 2루수에 있던 그냥 뛰어가기 바쁜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상대팀이 공을 잡았는지, 내가 뛰어도 팀에 실점이 되지는 않는지 살피기 시작했다"며 "아이들은 야구라는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승가원 후원금 사상 최고치 경신

10월 한달간 8억여원 모금... 2억원 후원자 '눈길'

승가원 설립 이래 가장 많은 후원금이 10월 한 달 동안 모였다.

승가원은 지난 11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후원금이 총 8억7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월보다 2억1천만원이, 지난해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모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데는 2억원을 쾌척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가원에 따르면 이 후원자는 사전 연락없이 10월 29일 지로를 통해 고액을 납부했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 기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은 5만원과 100만

원이었다.

승가원이 후원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라고는 이름과 나이, 주소가 전부다. 지로용지 발송록을 뒤져 찾아낸 주소로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두 차례 찾았지만 번번이 비어있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승가원 측은 "메모를 남기고 왔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화번호도 모르기에 달리 연락할 방도 없는 상황이다.

승가원 측은 "후원자가 살고 있는 곳은 다소 허름한 아파트였다"며 "70대 할아버지가 아마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장기기증자 20번째 천도제

신한은행, 환자치료비로 3백만원 후원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지난 1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장기기증 및 신신기증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천도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영가들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천도제에는 기증자 유가족 및 생명나눔 회원, 불암사 신도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련, 대령, 범포, 영가 천도, 진후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관무용단 이영민 단장이 직접 진후부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00년에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이룸도 성도 모르는 한 청년의 간을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며 "장기기증은 자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숭고한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희망등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 1일 진행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영가 축원 천도제

한편 11월 3일 신한은행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환자 치료비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생명나눔 7월의 환자로 선정됐던 이효준 환자의 사연을 신한은행 홈페이지 '사랑의 클릭' 제도를 통해 알고 9월 한 달 간 300만원을 모금했다. 사랑의 클릭 제도는 신한은행 직원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한 번 클릭 할 때마다 1천원이 적립된다.

배현진 기자

커피향 가득 강좌로 가을 감성 충전

중림복지관-스타벅스, 주민 위한 커피아카데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이 10월 한달간 진행한 커피교실 강좌가 막을 내렸다.

스타벅스 광화문지점 바리스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한 강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커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커피의 역사, 유래, 종류에 대해 배워보고 각자 집에서 손쉽게 향 좋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커피를 만들기 실습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퇴근 후 이런 유용한 강의를 듣게 돼서 뿌듯했다. 특강에서 배운 커피 내리기 노하우로 집에서 향긋한 커피를 즐겨봐야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



중림복지관에서 진행된 커피 수업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커피를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이라며 "영유아가 엄마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뮤직 동가동가'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키즈뮤직 동가동가'는 뮤지컬 동화를 듣고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으로, 20개월에서 4세 아동과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02)362-3348 배현진 기자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개관

석왕사 룬비니, 지역 문화공간으로 운영

작은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추진 중인 부천시가 10월 30일 소사동에 '무지개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부천시 공립도서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룬비니(이사장 영담)가 운영한다.

영담 스님은 개관식 개회사에서 "무지개도서관 사업을 통해 구도심 지역의 하나인 소사동 인근지역을 아낌없이 평화로운 마을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장은 축사에서 "무지개작은도서관이 소사동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곳곳에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지개도서관은 78평 공간에 정보자료실, 어린이서재, 열람석(50석) 등의 시설로 꾸며져 있다. 소사동을 비롯한 원미동



석왕사 룬비니 운영 무지개작은도서관의 내부

인근 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운영한다.

앞으로 무지개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아리조직을 구성, 주민참여를 통해 도서관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무지개와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선암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참여자 모집

어르신 사기 예방 소비자 교육도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이성호)에서는 스마트폰 무료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삼성과 LG 스마트폰 이용 어르신이 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11월 12~13, 19~20, 26~27일로 나눠서 진행된다. 원하는 날짜에 접수하면 된다. 30명 선착순 모집이다.

한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덕상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11월 13일

복지관 1층 강당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된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뜰폰 구매요령과 홍보관 상술 피해등을 연극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9일 최근 개봉한 '우리는 형제입니다'를 관람할 어르신들을 모집중이다. 영화는 어렵지 고아원에서 생이별한 후 30년만에 상봉한 형제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물이다. 만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 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한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스님에게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마이크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 watt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조체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삼장원 안거대중 모집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는 종법인 '삼장원·염불원법'에 바탕한 경전안거를 다음과 같이 사부대중과 함께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삼장원에서 시행하는 경전안거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거 기간 : 2558(2014)년 10월 15일(음) ~ 2559(2015)년 1월 15일(음)
- 안거 장소 :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 안거 대중 : 조계종 승려 중 승남 7년 이상의 비구
- 안거 내용 : 경전 연찬 및 「종경록」 강독
- 안거 과정 : 매주 월·목 오전 7시~10시 강의 및 세미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공개 강의 및 세미나
- 안거 특혜 : 삼장원의 안거는 전국 사찰 결계록에 등재하며,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안거로 인정되며, 2급 승가고시 응시할 때 수행이력으로 인정됨.
- 연 락 처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1 송광사 ☎ 063-243-8091

불기 2558년 11월 3일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회주 금산도영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삼장원 운영위원장 백강법진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삼장원장 덕산